

I 한자의 탄생

1 모양을 그려 낸 한자

15쪽

교과서 문제

1. ④ 2. ③ 3. (1) 일, 날/해 (2) 왈, 말하다
 1. •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: 人, 山, 日, 木, 田
 • ‘目(목)’과 음이 같은 한자: 木
 • 총획이 ‘水’와 같은 한자 → 4획: 木

유사 문제

1. ② 2. ⑤ 3. (1) ㉠ 금, 쇠 (2) ㉡ 김, 성씨
 1. •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: 足, 羊, 鳥, 血, 田
 • 동물의 모양을 본뜬 한자: 羊, 鳥
 • 총획이 ‘耳’와 같은 한자 → 6획: 羊

2 생각을 나타낸 한자

23쪽

교과서 문제

1. ①, ② 2. ①, ③ 3. ⑤
 3. 一, 二, 三, 中 - 지사 / 田 - 상형

유사 문제

1. ①, ②, ③, ④, ⑤ 2. (1) 本 (2) 中 3. ③
 3. 參: 三에 대한 갖은자.
 갖은자: 한자에서 같은 뜻을 지닌 글자 가운데 보통 쓰는 글자보다 획을 더 많이 써서 모양과 구성을 다르게 한 글자.

3 뜻과 뜻을 합한 한자

31쪽

교과서 문제

1. ③ 2. ③ 3. ①
 1. 名 - 이름 (명)
 3. 休 -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.

유사 문제

1. ⑤ 2. (1) 休, 휴, 쉬다 (2) 初, 초, 처음
 3. (1) 쟁기, 남자(사내) (2) 양, 아름답다 (3) 好 (4) 名
 1. 北 - 북쪽(북) / 달아나다 (배)
 2. 한자는 부수로 쓰일 때 모양이 바뀌기도 한다.
 예 人 → 亻, 衣 → 衤

4 뜻과 음이 만난 한자

39쪽

교과서 문제

1. ⑤ 2. ④ 3.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만들되, 일부는 뜻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을 나타낸 원리.
 1. ㉠ 江(강) 강 ㉡ 河(하) 물
 한자는 부수로 쓰일 때 모양이 바뀌기도 한다.
 예 水 → 氵

유사 문제

1. ① 2. ③ 3. ㉠ - 장인 공 ㉡ - 힘 력 ㉢ - 공 공
 3. 工(공)에서 음을 취하고, 힘(力)을 써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‘공’, ‘업적’ 등의 뜻을 갖게 됨.

대단원 평가

42~43쪽

1. ② 2. ⑤ 3. ⑤ 4. ③ 5. ③
 6. ③ 7. 土 8. ② 9. (1) ㉠ 每 (2) ㉡ 末
 10. ③ 11. ④ 12. ⑤ 13. 參, 삼
 14. ㉠ 北 ㉡ 西 ㉢ 東 ㉣ 南

1. 세 개의 산봉우리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.
 2. ①~④ - 지사 ⑤ - 상형
 3. 村(촌) 마을, 材(재) 재목 - 형성 / 林(림) 수풀 - 회의
 4. 好(호) 좋다, 明(명) 밝다 - 회의
 江(강) 강, 晴(청) 개다 - 형성
 5. 水(물 수) + 可(옳다 가) → 河(물 하)
 水(물 수) + 靑(푸르다 청) → 淸(맑다 청)
 水(물 수) + 谷(골짜기 곡) → 浴(목욕하다 욕)
 6. ③ 母(모) 어머니 / ① 父(부) 아버지 ② 兄(형) 형
 ④ 弟(제) 아우 ⑤ 祖(조) 할아버지
 7. 七日(칠일)에 해당하는 요일은 토요일이다.
 8. 本 → 本 本 本 本 本
 9. 〈가로〉 하루하루마다. → 每日(매일)
 〈세로〉 어떤 시기나 기간의 맨 마지막 날. → 末日(말일)
 10. ③ 雪(설) 눈: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.
 目(목) 눈: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.
 11. ① 白(백) 희다 ② 赤(적) 붉다 ③ 靑(청) 푸르다
 ④ 黃(황) 누르다 ⑤ 黑(흑) 검다

12. 參(삼) 셋 → 百(백) 일백 → 千(천) 일천 → 萬(만) 일만 → 億(억) 억
13. 參(참) 참여하다
(삼) 셋
14. 東(동) 동쪽, 西(서) 서쪽, 南(남) 남쪽, 北(북) 북쪽

II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

5 우리말 어순과 같은 단어

53쪽

교과서 문제

1. ⑤ 2. ④ 3. (1) ㉠ 左右 (2) ㉡ 海洋
3. ㉠ 서로 상대되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
경우: 左(좌) 왼쪽 ↔ 右(우) 오른쪽
㉡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한자가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
경우: 海(해) 바다 ≡ 洋(양) 큰 바다

유사 문제

1. (1) 日出 (2) 夜深 2. (1) ㉠ 月 (2) ㉡ 左 (3) ㉢ 洋
3. (1) ㉠ 空冊 (2) ㉡ 自習 4. ㉠ 주의나 관심. 예 그의 멋진 모기가 사람들의 耳目을 끌었다. ㉡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. 예 그는 왕의 手足이 되었다.
3. 空冊(공책): 빈 책[명사].
自習(자습): 스스로 익힘[동사].

6 우리말 어순과 다른 단어

61쪽

교과서 문제

1. ⑤ 2. ③ 3. ㉠ 家, ㉡ 情, ㉢ 席
1. ㉢ 出席(출석)
2. 술목 관계 ㉢, ㉡, ㉠ 술보 관계 ㉠, ㉡, ㉢
목적어는 동작, 행위, 소유(有, 無)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.

유사 문제

1. ⑤ 2. 書, 心 3. (1) 무한, 한계가 없음, 술목 (2) 견책, 책망을 당함, 술목
1. ㉠ 귀가 ㉡ 독서 ㉢ 출석 ㉣ 다정
2. 술목 관계 ㉡, ㉢ 술보 관계 ㉠, ㉢, ㉣

대단원 평가

64~65쪽

1. ③ 2. ① 3. ③ 4. ② 5. ①
6. ③ 7. ① 8. 典 9. ③ 10. ④
11. ④ 12. (1) ㉠ 傳 (2) ㉡ 合 (3) ㉢ 變 13. 玉石
14. 忘年, 授業

1. 주술 관계, 수식 관계, 병렬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는 우리말 처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이하고, 술목 관계, 술보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는 우리말 어순과 달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풀이한다.
① 左右(좌우) - 병렬 관계 ② 空冊(공책) - 수식 관계
③ 無限(무한) - 술목 관계 ④ 休日(휴일) - 수식 관계
⑤ 耳目(이목) - 병렬 관계
2. ② 自習(자습) - 수식 관계 ③ 魚貝(어패) - 병렬 관계
④ 出席(출석) - 술보 관계 ⑤ 合心(합심) - 술목 관계
3. 夜[밤이 - 주어]深[깊음, - 서술어]
歸[돌아감/돌아옴, - 서술어]家[집에 - 보어]
多[많음, - 서술어]情[정어 - 보어]
4. ② 魚貝(어패) - 병렬 관계
5. ① 뜻이 서로 상대되는 경우로 이루어진 병렬 관계
②~⑤ 뜻이 서로 비슷한 경우로 이루어진 병렬 관계
6. 樂(락) 즐겁다
(악) 풍류
(요) 좋아하다
7. 讀 - (독) 읽다 / (두) 구두
① 句頭(구두) ② 多讀(다독) ③ 精讀(정독) ④ 讀書(독서) ⑤ 讀解(독해)
8. 典(전) 책, 법
9. <가로> 정과 한을 아울러 이룸. → 情恨(정한)
<세로> 정이 많음. → 多情(다정)
10. 惡 - (악) 악하다 / (오) 싫어하다
11. ④ 永久(영구): 어떤 상태가 시간상으로 무한히 이어짐.
12. 傳(전) 전하다 / 合(합) 합하다 / 變(변) 변하다
13. 玉(옥) 구슬 石(석) 돌
14. 忘年(망년): 그 해의[年] 온갖 괴로움을 잊음.[忘]
授業(수업):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을[業] 가르쳐 줌.[授]

Ⅲ 성어에 담긴 의미

7 언어생활 속의 성어

75쪽

교과서 문제

1. ① 2. ④ 3. 예 (가) 苦盡甘來라더니, 힘든 노력 끝에 결국 꿈을 이루었다. (나) 東問西答하지 말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 봐. (다) 雪上加霜으로 일이 더 안 좋아졌어. (라) 네가 할 일을 자꾸 남한테 시키지 말고, 易地思之해 봐. (마) 그가 한번 마음을 먹고 공부에 전념하니 日就月將이었다.

2. 易地思之(역지사지):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.

유사 문제

1. ① 2. ① 3. ㉠ 일취월장 ㉡ 처지를 바꾸어 그 것을 생각함. ㉢ 東問西答

1. 雪上加霜(설상가상): 눈 위에 서리를 더함. →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.

2. 苦盡甘來(고진감래):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. →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.

8 이야기를 품은 성어

83쪽

교과서 문제

1. ③ 2. ② 3. (다), (라), (마)
1. 結草報恩(결초보은): 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.

유사 문제

1. ③ 2. ① 3. ㉠ 朝三暮四 ㉡ 결초보은 ㉢ 풀을 묶어 ㉣ 눈앞의 차이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. ㉤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.

1. 過猶不及(과유불급) 유래 - “논어(論語)”에 나오는 말로,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“자장과 자하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?”라고 묻자, 공자는 “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.”라고 말하였다. 그러자 “그럼 자장이 더 낫단 말씀입니까?”라고 묻자, 공자는 “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.[過猶不及]”라고 말하였다.

대단원 평가

86~87쪽

1. ③ 2. ④ 3. ④ 4. ① 5. ③
6. ⑤ 7. ① 8. ㉠ 日 ㉡ 月 9. 若 → 苦
10. ⑤ 11. ③ 12. ⑤ 13. 之 14. 동쪽을 물었는데, 서쪽을 대답함.

1. (다) 易地思之(역지사지):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.
2. (마) 朝三暮四(조삼모사): 아침에 세 개, 저녁에 네 개. → ① 눈앞의 차이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름. ②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.
3. (가) 三尺童子(삼척동자): 키가 석[三] 자[尺]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[童子].
(마) 朝三暮四(조삼모사): 아침[朝]에 세[三] 개, 저녁[暮]에 네[四] 개.
4. 易地思之(역지사지)
㉠. 交易(교역) ㉡. 貿易(무역) ㉢. 平易(평이) ㉣. 容易(용이)
5. ㉠ 사내 ㉡ ~의 ㉢ 지나치다 ㉣ 같다
6. 螢雪之功(형설지공): 반딧불·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,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.
7. 衆口難防(중구난방):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,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.
8. 日(일-날)就(취-나아가다)月(월-달)將(장-나아가다)
9. 若(약) 같다, 만약 / 苦(고) 쓰다
10. 온 첫소리가 ㉠, ㉡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 위치할 경우, 대개 ‘부’로 읽는다.
㉠ 不純(불순) ㉡ 不幸(불행) ㉢ 不當(부당) ㉣ 不足(부족)
11. 〈가로〉 사정이 몹시 막히고 어려움. → 困難(곤란)
〈세로〉 봄날에 느끼는 나른한 기운. → 春困(춘곤)
12. ⑤ 詩想(시상): ①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. ②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.
施賞(시상): 상장이나 상품, 상금 등을 줌.
13. ㉠ 易地思之(역지사지):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함.
㉡ 漁父之利(어부지리): 어부의 이익.
14. 東問西答(동문서답): 잘못-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대답함. 속뜻-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.

IV 교훈이 담긴 짧은 글

9 속담 속에 담긴 세상

97쪽

교과서 문제

1. ③ 2. ② 3. (1) (가) - 세 살 적 버릇[마음]이 여
든까지 간다. (2) (나) -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

1. ㉠은 '∼까지'로 풀이되는 개사이다.
2. ㉡은 '오는 말이 곱지 않다.'라고 풀이된다.

유사 문제

1. ④ 2. ② 3. ④
1. ㉠은 '∼의'로 풀이되는 어조사이다.
2. ㉡은 '여든까지 이른다.'라고 풀이된다.

10 효도와 우정의 의미

105쪽

교과서 문제

1. ② 2. ③ 3. ①
1. ㉠의 뜻과 음은 '뵈고 아뢰다 (곡)'이다.
2. ㉡은 '그러나'로 풀이되는 접속사이다.

유사 문제

1. ⑤ 2. ① 3. ②
2. ㉠의 풀이는 '아버이[부모님]'이고, ㉡은 첫소리가 ㄷ, ㅈ으로
시작하는 음절 앞에 위치할 경우, 대개 '부'로 읽는다.
3. ㉢은 '진심으로 타이름.'이라고 풀이되므로, 동사류를 수식하
는 '수식 관계'의 단어이다.

11 명언·명구 속 깨우침

113쪽

교과서 문제

1. ② 2. ④ 3. 명령문
1. ㉠의 뜻과 음은 '다시 (부)'이고, ㉡의 뜻과 음은 '다시 (갱)'이다.
2. ㉢은 '∼의'로 풀이되는 어조사이다.

유사 문제

1. ⑤ 2. ② 3. 평서문
1. ㉠은 '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'이라고 풀이된다.
3. 문장의 유형을 화자가 나타내는 어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'평
서문, 의문문, 명령문, 감탄문'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.

대단원 평가

116~117쪽

1. ① 2. ④ 3. ⑥ 4. 출필곡, 반필면 / 나
갈 때에는 반드시 아뢰고,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는다.
5. ③ 6. ③ 7. ③ 8. ④
9. 白 → 百 10. ① 11. ③
12. 莫逆之友 13.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봄.
14. ①

1. ① 計(계) 셈하다
② 語(어) 말씀 ③ 誰(수) 누구 ④ 誤(오) 그릇되다 ⑤ 請(청)
청하다
2. ㉠ 于 ~까지
3. 來語[오는 말] 不美[곱지 않다].
5. 자식이[子] 봉양[養]하고자[欲] 하나[而] 부모님은[親] 기다
리지[待] 않는다[不].
6~7. 朋友有過, 忠告善導.(봉우유과, 충고선도): 친구에게
잘못이 있으면 충고하여 좋은 길로 이끈다. → 진정한 친구
는 친구의 잘못을 알려 주어 바른길로 이끌어야 함.
8. 己所不欲, 勿施於人.(기소불욕, 물시어인): 자기가 하고
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[시키지] 말라.
9. 白(백) 희다 / 百(백) 일백
10. <가로> 남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. → 宅內(택내)
<세로>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. → 住宅(주택)
11. ③ 喪家(상가):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집.
商家(상가):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집.
13. 성어의 겉뜻: 한자의 풀이를 통하여 겉으로 드러난 뜻.
성어의 속뜻: 유래 속에서 드러난 주제.
㉠ 坐井觀天(좌정관천):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봄.
14. 水去不復回, 言出難更收.(수거불부회, 언출난갱수): 물
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, 말은 내뱉으면 다시 거두기
가 어렵다.

V 한자문화권의 전통과 유산

12 간지로 나타낸 시간

127쪽

교과서 문제

- ④ 2. ① 3. 壬午, 壬寅
- ㉠은 '~와/과'로 풀이되는 접속사이다.
- 2002년의 끝자리가 20이므로 천간은 '壬'이고,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므로 지지는 '午'이다. / 2022년의 끝자리가 20이므로 천간은 '壬'이고,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므로 지지는 '寅'이다.

유사 문제

- ④ 2. ④ 3. 辛卯, 庚申
- ㉠은 '~의'로 풀이되는 어조사이다.
- 열 개의 천간과 열두 개의 지지를 순차로 배합하여 늘어놓으면 모두 예순 가지가 만들어진다.
- 2011년의 끝자리가 1이므로 천간은 '辛'이고,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므로 지지는 '卯'이다. / 2100년의 끝자리가 0이므로 천간은 '庚'이고, 1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므로 지지는 '申'이다.

13 이름의 종류와 의미

135쪽

교과서 문제

- ③ 2. ① 3. ②
- '所以'는 '것, 방법, 까닭'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, 여기에 서는 '~것'으로 풀이된다.
- '字'는 관례나 계례 뒤에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지어 준 이름이다.

유사 문제

- ② 2. ① 3. ⑤
-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 '自'이다.
- '諡'는 왕이나 재상 등이 죽은 뒤에,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이다.

14 나이를 대신한 표현

143쪽

교과서 문제

- ④ 2. ① 3. 귀로 들으면 순순히 이해되었다.
- 不惑의 독음은 '불혹'이며, ㉠은 첫소리가 ㄷ, ㅈ으로 시작하는 음절 앞에 위치할 경우, 대개 '부'로 읽는다.

유사 문제

- ① 2. 미혹되지 않는다. 3. ⑤
- 주어진 글은 공자(孔子)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결정적 변화를 겪었던 시기를 나이와 관련지어 말한 부분이다.
- 미혹(迷惑):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. 또는 정신이 헛갈리어 갈팡질팡 헤매.
- ㉠은 '예순 살에 귀로 들으면 순순히 이해되었다.'라고 풀이된다.

대단원 평가

146~147쪽

- ① 天 ㉠ 地 2. 을, 병, 정, 무, 기, 경, 신, 임, 계
- ⑤ 4. ① 5. ⑤ 6. ① 名 ㉠ 字
- ④ 8. 공자 9. ⑤ 10. ③ 11. ③
- ⑤ 13. ①

- 天之十干, 與地之十二支.(천지십간, 여지십이지): 하늘의 십간은 땅의 십이지와
- 十干은 육십갑자의 위 단위를 이루는 요소로, 갑(甲), 을(乙), 병(丙), 정(丁), 무(戊), 기(己), 경(庚), 신(辛), 임(壬), 계(癸)이다.
- '축(丑)'은 십이지(十二支)의 둘째로, 소를 상징한다.
- '술(戌)'은 십이지(十二支)의 열한째로, 개를 상징한다.
- '자시'는 십이시(十二時)의 첫째 시로, 밤 열한 시부터 오전 한 시까지이다.
- 名者, 所以自稱, 而字者, 所以稱人也.(명자, 소이자칭, 이자자, 소이칭인야): 이름은 스스로를 일컫는 것이고, 자는 남을 부르는 것이다.
- ④ '시호'는 왕이나 재상들이 죽은 뒤에,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이다.
- 제시문은 공자가 표현한 나이이다. 따라서 1인칭 화자는 '공자'가 된다.

9. 이립(而立): 서른 살에 자립함. / 불혹(不惑): 마흔 살부터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음. / 지천명(知天命): 쉰 살에 천명(天命)을 앎.

11. ① 及其也(급기야): 마지막에 가서는. ② 早晚間(조만간): 앞으로 곧. ③ 甚至於(심지어): 더욱 심하다 못하여 나중에. ④ 都大體(도대체):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.

VI 한시의 향기

15 말없이 이별하고서

157쪽

교과서 문제

- ⑤ 2. ⑤ 3.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여인의 슬픔.
- ①은 '부끄러워하다', ②은 '이별하다', ③은 '돌아오다', ④은 '잠그다'라고 풀이된다.
- 주어진 시에 '등(잔)불'은 드러나지 않는다.

유사 문제

- ② 2. ② 3. ③
- 오연시는 각 구를 두 자, 세 자 단위로 띄어 읽는다.
- (다)는 '돌아와서 겹문까지 걸어 잠그다.'라고 풀이된다.

16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

165쪽

교과서 문제

- ④ 2. ⑤ 3. 사람이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가는 모습
- 호란(胡亂):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고 분간하기 어려움.
- 주어진 시에서 '程'은 '길 또는 이정표'로 풀이된다.

유사 문제

- ① 2. ② 3. ②
- 주어진 시의 계절적 배경은 '겨울'이다.
- (라)는 '마침내는 뒷사람의 길이 되리라.'라고 풀이된다.
- 주어진 시의 운자는 '行', '程'이다.

17 그림 속에 내가 있네

173쪽

교과서 문제

- ③ 2. ③ 3. 空
- 주어진 시에 '새'는 드러나지 않는다.
- 첫 번째 시구는 '가을 하늘 아득하고 사방 산은 비었다.'라고 풀이된다.

유사 문제

- ⑤ 2. ④ 3. ①
- 막막(漠漠): 아주 넓거나 멀어 아득함.
- 칠언시는 각 구를 네 자, 세 자 단위로 띄어 읽는다.
- (라)는 '몸[자신]이 그림 속에 있는 줄 알지 못하였구나.'라고 풀이된다.

대단원 평가

176~177쪽

- ⑤ 2. ④ 3. ⑥ 4. ① 5. 모름지기 어지러이 견지를 말라. 6. ② 7. ① 8. ①
- ③ 10. ① 11. ⑤ 12. ③ 13. 진심에 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 14. 修己治人

- 한 구가 다섯 글자이며, 네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[오연 절구]. 오연 절구의 운자는 대체적으로 짝수 구의 끝에 위치한다. 이 시의 작자인 임제는 조선 선조 때의 시인(1549~1587)이다.
- ④ 절구에서 배꽃 사이 달을 보며 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- 오연시는 각 구를 두 자, 세 자 단위로 끊어 읽는다.
- 시행의 일정한 자리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것을 '압운'이라고 하며, 이때 압운된 글자를 '운자'라고 한다.
① 운자는 行(행)과 程(정)이다.
- 不須: 모름지기 ~하지 말라.
- 〈가로〉 책을 지음. 또는 그 책. → 著書(저서)
〈세로〉 글자, 그림 등을 장난으로 아무 데나 함부로 씌. → 落書(낙서)
- ① 운자는 空(공), 紅(홍), 中(중)이다.
- 秋陰(추음): 가을의 구름 낀 하늘.
- 칠언시는 각 구를 네 자, 세 자 단위로 끊어 읽는다.

10. ① 送(송) 보내다, ② 達(달) → 連(련) 잇다, ③ 追(추) → 迎(영) 맞이하다, ④ 迎(영) → 達(달) 도달하다, ⑤ 連(련) 잇다 → 追(추) 쫓다

11. ⑤ 飯 - 밥 (반)

12. ③ 太平(태평):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음. / 犬(견) 개

13. 一(일 하나) 片(편 조각) 丹(단 붉다) 心(심 마음)

14. 修(수 닦다) 己(기 몸, 자기) 治(치 다스리다) 人(인 남, 사람)

VII 이야기 속 감동과 깨달음

18 눈물에 담긴 열정

187쪽

교과서 문제

1. ① 2. ③ 3. 울면서도 눈물을 끌어다가 새 그림을 완성하였다.

1. 이징(李澄)은 조선 중기의 뛰어난 문인 화가였다.
2. ㉠은 '집안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몰랐다.'라고 풀이된다.

유사 문제

1. ⑤ 2. ⑤ 3. ②
1. ㉠은 '그'로 풀이되며, '이징(李澄)'을 가리킨다.
2. ㉠은 문맥상 '찾았다.'로 풀이된다.
3. ㉠은 '아버지가 노해서 그를 회초리로 때렸다.'라고 풀이된다.

19 목숨을 구한 지혜

195쪽

교과서 문제

1. ④ 2. ② 3. 友
1. 주어진 글에서 '得'은 '~할 수 있다.'라고 풀이된다.
3. 사마온공(사마광)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는 '파옹구우(破甕救友)'이다.

유사 문제

1. ② 2. ② 3. ④
1. '墮'의 음은 '타'이다.
2. ㉠은 '한 아이가 큰 물 항아리 속에 빠졌다.'로 풀이된다.
3. ㉠은 '공[사마온공]이 돌을 집어 항아리를 깨뜨리다.'라고 풀이된다.

20 보이지 않는 선행

203쪽

교과서 문제

1. ① 2. ② 3. 다른 사람들이 사다 먹고 병이 날까 염려해서였다.
2. 주어진 글을 통하여 홍서봉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려와 선행을 실천했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.

유사 문제

1. ③ 2. ④ 3. ⑤
1. '婢'의 음은 '비'이다.
2. ㉠은 '~의'로, ㉡은 '~이'로 각각 풀이되는 어조사이다.
3. 홍서봉의 어머니가 여종을 시켜 그 고기를 전부 사서 담장 아래에 묻게 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사다 먹고 병이 날까 염려해서였다.

대단원 평가

206~207쪽

1. ②, ④ 2. ④ 3. ③ 4. ③ 5. ①
6. 한 아이가 큰 물 항아리 속에 빠졌다. 一兒(주어) + 墮(서술어) + 大水甕中(보어) 7. ④ 8. ⑤
9. 盡買其肉 10. 다른 사람들이 사다 먹고 병이 날까 염려해서였다. 11. ① 12. ②
13.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.

1. '其'와 '之'는 이징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다.
2. ④ 怒(노) 성내다
3. 집안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몰랐다가 삼 일 만에 비로소 찾았다. [三日乃得] 아버지가 노해서 그를 회초리로 때렸는데, ~
4. ③ 走(주) 달리다 → 달아나다
5. 어릴 적[幼]에 아이들[群兒]과[與] 놀다가[戲]
6. 주술보 구조: 주어, 서술어, 보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.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보어가 뒤에 놓인다.
7. '許'는 본문에서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'쯤'으로 풀이된다.
8. 머리[首] 장식을[飾] 팔아[賣] 돈을[錢] 마련하여[得]
11. ① 烏(오) 까마귀 / 烏(조) 새

12. 新聞(신문):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.
13. 自(자 스스로)強(강 힘쓰다, 강하다)不(불 아니다)息(식 쉬다)

VIII 성현들의 가르침

21 공자의 가르침

217쪽

교과서 문제

1. ③ 2. ~만 같지 못하다. 3. ②
1. ① 時 - 때 (시), 10획 ② 好 - 좋다 (호), 6획 ④ 從 - 따르다 (중), 11획 ⑤ 樂 - 즐겁다 (락), 15획

유사 문제

1. ① 2. ① 3. ① - 선한 사람, ④ - 자신의 잘못
1. ㉠ - 때때로 ㉡ - 그것 ㉢ - 또한 ㉣ - 기쁘다
3. 그중에 선한 사람을 가려서 그를 따르고, 그중에 선하지 않은 사람을 (가려서) 그것[자신의 잘못]을 고친다.

22 맹자의 주장

225쪽

교과서 문제

1. ② 2. ④ 3.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찾다.
1.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는 것이 없다.

유사 문제

1. ① 2. ① 3. ⑤
1.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. 水 → 之 → 下 → 就 → 猶
3. ① 맹자 ② 자기 ③ 돌이켜서[反] 자기에게서 찾을 뿐이다
④ 諸(저) - ~에게

대단원 평가

228~229쪽

1. ② 2. ③ 3. ⑤ 4. ② 5. 논어
6. ③ 7. 그중에 선한 사람을 가려서 그를 따른다.
8. ① 9. ② 10. 쓰았는데 맞지 않더라
11. ① 12. 반구저기, 돌이켜서 자기에게서 찾다.
13. ② 14. ③

1. ㉠에서 時는 '때때로'로 풀이된다.
2. 不亦說乎?(불역열호):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?
說이 '기쁘다'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'열'로 음을 취한다.
3. 不如는 '~만 같지 못하다'라는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.
4. 樂(락) 즐겁다 / (악) 풍류 / (요) 좋아하다
5. "논어(論語)"는 유교 경전인 사서(四書)의 하나로,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적은 것이다.
6. ③ '有'는 '있다'라고 풀이한다.
7. '擇其善者而從之'에서 '之'는 '선한 사람'을 가리킨다.
④ '其不善者而改之'에서 '之'는 '자기의 잘못'을 가리킨다.
8. ① ㉠은 '~이/가'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.
9. '者'는 '수식어+者'의 구조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어조사이다. / 仁者: 인(仁)은
10. ㉡에서 '中'은 '적중하다'의 의미로 풀이된다.
11. 자기를[己] 이긴[勝] 사람을[者] 원망하지[怨] 않고[不]
12. '諸'가 '~에게'의 의미인 개사로 쓰일 때에는 음은 '저'를 취한다.
13. 集(집) 모이다 雖(수) 비록 雄(웅) 씩씩하다
14. ③ 徒步(도보):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.

IX 역사 속 위인

23 이순신 - 결전을 앞두고

239쪽

교과서 문제

1. ④ 2. ⑤ 3. 尙, 十, 二, 有
2. ㉠ - 감히 곧장 양호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.
3. 아직 열두 척이 있다.

유사 문제

1. ① 2. ④ 3. ①
2. 수군들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.
3. ㉠ - 열두 척

교과서 문제

1. ② 2. ⑤ 3. ⑤
1. ① 개천절 ③ 단오절 ④ 삼일절 ⑤ 중추절

유사 문제

1. ③ 2. 하얼빈 공원 옆에 묻히는 것 3. ③
1. ㉠ - 옳다
3. ㉡ - 감옥 안의 땅에 장사 지내게 하였다. / 獄內之地 → 葬 → 使

대단원 평가

250~251쪽

1. ① 2. ① 3. 수군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. ㄴ
4. ④ 5. ① 6. ③ 7. ③ 8. ④
9. 대국권지복, 국권의 회복을 기다리다. 10. ②
11. 使葬獄內之地. 12. ④ 13. ④
14. ④

1. '自壬辰.'에서 '自'는 '~(로)부터'로 풀이되는 개사로 쓰인다.
2. ① 舟師 - 수군(아군을 의미함.)
3. 舟師之[주어]扼[서술어]其路[목적어]
4. ④ 拒戰: 적을 막아서 싸움.
5. 첫 문장에서 임진년으로부터 5, 6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.
6. '청산리 전투'와 관련 있는 인물은 김좌진 장군이다.
7. ㉠에서 '於'는 개사로 '~에'의 뜻을 지닌다.
8. ㉡에서 '之'는 '~의'로 풀이되는 어조사이다.
9. ㉢에서 '復'은 회복하다 (복)이다.
10. 두[二] 아우가[弟] 그의[其] 말[言]처럼[如] 하고자 하였다.[欲]
12. <가로> 바쁜 가운데 잠깐 얻어 낸 틈. → 忙中閑(망중한)
<세로> 일이 없어 한가함. → 閑散(한산)
13. ④ 뜻이 상대되는 한자 / ①, ②, ③, ⑤ - 뜻이 비슷한 한자
14. ④ 近視(근시) → 注視(주시)

1. ③ 2. ② 3. ⑤ 4. (1) ㉠ 나무 (2) ㉡ 촌
(3) ㉢ 村 5. ④ 6. ① 7. ② 8. ④
9. ⑤ 10. ④ 11. ② 12. 喜怒哀樂
13. ⑤ 14. 예 左右, 日月, 上下, 江河 15. ①
16. ③ 17. (1) ㉠ 물고기 (2) ㉡ 조개 18. ②
19. ⑤ 20. ④ 21. ④ 22. ④ 23. (1) 손
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. (2) 예 남의 手足 노릇을
하다. 24. 고사성어는 옛이야기에서 유래된 성어이고,
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이다.

1. ③은 두 뿔을 강조한 양 머리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다.
①, ② - 회의 / ④ 지사 / ⑤ 형성
2. 末(말) 끝 / ② 炎(염) 불꽃
3. 休(휴) 쉬다 - 회의
①, ② - 상형 / ③ 지사 / ④ 형성 / ⑤ 회의
4. '형성'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뜻을 만들되,
일부는 뜻을 나타내고 일부는 음을 나타낸 원리이다.
5. ㉠ 田(전) 밭 - 상형 ㉡ 炎(염) 불꽃 - 회의 ㉢ 聞(문) 듣다
- 형성 ㉣ 三(삼) 셋 - 지사 ㉤ 下(하) 아래 - 지사 ㉥ 晴
(청) 개다 - 형성 ㉦ 名(명) 이름 - 회의 ㉧ 鳥(조) 새 - 상형
6. ①은 농사짓는 땅과 그 길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다.
7. ② 參億(삼억) / ① 不參(불참) ③ 參席(참석) ④ 參考(참고)
⑤ 參加(참가)
8. 耳(이) 귀 目(목) 눈 口(구) 입 鼻(비) 코 手(수) 손 足(족) 발
9. 夜深(야심): 밤이 깊음. - 주술 관계 / ⑤ 日出(일출): 해가
뜸. - 주술 관계
① 出席(출석): 자리에 나아감. - 술보 관계 ② 合心(합심):
마음을 합함. - 술목 관계 ③ 左右(좌우): 왼쪽과 오른쪽. -
병렬 관계 ④ 自翫(자습): 스스로 익힘. - 수식 관계
10. ④ 巖石 → 玉石(옥석):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, 좋은 것과
나쁜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.
11. 獨(독) 읽다 / (두) 구두 ① 다독 ② 구두 ③ 독서 ④ 정독 ⑤
독해
12. 喜怒哀樂(희로애락):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
울려 이르는 말.
13. 주술 관계, 수식 관계, 병렬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는 우리말처
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이하고, 술목 관계, 술보 관계로 이
루어진 단어는 우리말 어순과 달리 뒤에서 앞으로 풀이한다.

㉠ 無限(무한) - 술목 관계 ㉡ 空冊(공책) - 수식 관계 ㉢ 歸家(귀가) - 술보 관계 ㉣ 日出(일출) - 주술 관계 ㉤ 海洋(해양) - 병렬 관계

15. 제시문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다.

16. ① 苦(고) 쓰다 ② 將(장) 장수, 장차, 나아가다 ④ 不(불/부) 아니다 ⑤ 因(인) 인하다

18. ② 仰天大笑(양천대소):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거나 어이가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크게 웃음. / ① 三(삼) 셋 ③ 一(일) 하나, 二(이) 둘 ④ 九(구) 아홉, 一(일) 하나 ⑤ 三(삼) 셋, 四(사) 넷

19. ⑤ 衆口難防(중구난방):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,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.

21. ㉠ 雪上加霜(설상가상):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,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.

22. 多多益善에서 '善'은 '좋다'라는 의미로 쓰인다. ④ 好(호) 좋다

기말고사 1 학기

258쪽

1. ⑤ 2. ② 3. ① 4. ④ 5. ⑤
6. ① 7. ⑤ 8. ③ 9. ① 10. 車道
11. ② 12. ⑤ 13. (가) 평서문 (나) 명령문 (다) 의문문
14. ⑤ 15. ② 16. ⑤ 17. ③ 18. (1) ㉠
白 (2) ㉡ 百 (3) ㉢ 一 19. ④ 20. ③ 21. 耳順
22. ② 23. ㉠ 更新(경신)과 ㉡ 更新(갱신)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의 공통 의미를 지니나, 기록경기 등에서, 종전의 기록을 깨뜨릴 때에는 ㉠ 更新(경신)으로,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에는 ㉡ 更新(갱신)으로 쓰인다. 24. ㉠ (1) 眞素(진소) (2) 참된 바탕. 사람들 사이에 참된 바탕이 형성되면 서로 믿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다.

1. ① 歲(세) 해 ② 宅(택) 맥 / (택) 집 ③ 友(우) 벗 ④ 與(여) 더하다, ~와/과, 주다

2. 美는 크고 살진 양이라는 것에서 '아름답다'라는 뜻을 나타낸 회의자이다.
① 豆 - 상형 ② 名 - 회의 ③ 河 - 형성 ④ 請 - 형성 ⑤ 下 - 지사

3. ① 白虎(백호): 흰 호랑이. - 수식 관계, 空冊(공책): 빈 책. - 수식 관계 ② 舍宅(사택): 집. - 병렬 관계, 夜深(야심): 밤이 깊음. - 주술 관계 ③ 洗車(세차): 차를 씻음. - 술목 관계, 童心(동심): 어린이의 마음. - 수식 관계 ④ 呼

名(호명): 이름을 부름. - 술목 관계, 洞里(동리): 마을. - 병렬 관계 ⑤ 下車(하차): 차에서 내림. - 술보 관계, 始初(시초): 처음. - 병렬 관계

4. ④ 賀客(하객): 축하하는 손님.

5. 莫逆之友(막역지우):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,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. / ⑤ 竹馬故友(죽마고우):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,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.

6. 坐井觀天(좌정관천):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, 사람의 견문(見聞)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.

7. 千滿(간만): 간조와 만조를 아울러 이르는 말. 若干(약간): 얼마 되지 않음.

8. 三歲之習, 至于八十.(삼세지습, 지우팔십): 세 살 때의 습관이 여든까지 이른다.

9. 子欲養而親不待.(자욕양이친부대):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는다.

10. 사람이 통행하는 길. → 人道(인도) ↔ 車道(차도)

11. 水去不復回(수거불부회): 물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.
① 불만 ② 부족 ③ 불순 ④ 불행 ⑤ 불문

12. ⑤ 都大體(도대체):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인데. / 但只: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.

13. 평서문: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. / 명령문: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·요청하는 문장. / 의문문: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.

14. 告(고) 알리다, (곡) 뵙고 아뢰다

15. 己所不欲, 勿施於人.(기소불욕, 물시어인):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[시키지] 말라.

16. ① 子 - 쥐 ② 寅 - 호랑이 ③ 辰 - 용 ④ 未 - 양

19. ㉠ 十(십) ㉡ 八(팔) ㉢ 一(일)

20. '五十以伯仲'에서 '以'는 '~로써'로 풀이되는 개사로 쓰인다.

21. 耳順(이순)은 예순 살을 달리 이르는 말로, "논어" '위정편'에서, 공자가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.

22. (나)는 공자(孔子)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결정적 변화를 겪었던 시기를 나이와 관련지어 말한 데에서 유래하였다.

중간고사 2 학기

262쪽

1. ③ 2. 貝 3. ⑤ 4. ④ 5. ④
 6. ③ 7. 樂 8. ⑤ 9. ① 10. ④
 11. ② 12. ③ 13. 別, 月 14. ② 15. (1) (가)
 겨울 (2) (나) 가을 16. ② 17. ③ 18. ②
 19. ③ 20. ⑤ 21. ② 22. ③ 23. 다른
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선행이 갖는 의미 24. 기구: 시상을 불러
 일으킴. / 승구: 시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킴. / 전구: 시상에 변
 화를 주어 시의 흐름을 전환시킴. / 결구: 시상을 마무리함.

1. ③ 暴惡 - (포악)
 2. 貧(빈), 貴(귀), 貯(저), 貞(정)은 모두 '貝(패 조개)'를 부수
 로 하는 한자이다.
 3. 降(강) 내리다 / (향) 항복하다
 4. 鳴(명) 울다
 5. 郡舞 → 群舞(군무):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춤.
 6. 夫婦(부부) - 병렬 관계 / ③ 品貴(품귀) - 주술 관계
 7. 樂(락) 즐겁다 / (악) 풍류 / (요) 좋아하다
 8. ⑤ 家政: 집안을 다스리는 일. / 家庭(가정): 한 가족이 생
 활하는 집.
 9. 臨機應變(임기응변):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
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.
 10. ①, ②, ③, ⑤ - 붉다 ④ - 푸르다
 12. ③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
 워 말도 못 하고 돌아와 혼자 눈물짓는 여인의 심정을 한 폭의
 그림같이 묘사하고 있다.
 13. 오연시의 운자는 대체적으로 짝수 구의 끝에 위치한다.
 14. 胡亂: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고 분간하기 어려움.
 ① (가)의 작자는 이양연이다. ③ (나)의 운자는 '空, 紅, 中'
 이다. ④ (나)의 화자는 김 거사를 찾아 나섰다가 도중에 맞
 이하게 된 늦가을의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. ⑤ (가)는 오연 절
 구, (나)는 칠언 절구이다.
 15. (가) 穿雪: 눈 속을 뚫고 감.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자 시적
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려 주는 시어.
 (나) 秋陰: 가을의 구름 낀 하늘.
 16. ② '나'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이다.
 17. 칠언 절구는 네 자, 세 자 단위로 끊어 읽는다.
 18. (가)는 조선 중기의 화가 이징의 어릴 적 일화이다.

19. ① 家(주어) + 失(서술어) + 其所在(목적어)
 ㉠ 一兒(주어) + 墮(서술어) + 大水甕中(보어)
 20. '兒得出.'에서 '得'은 '할 수 있다'로 풀이되는 동사로 쓰인다.
 21. ② 許 - 줌

기말고사 2 학기

266쪽

1. ① 2. ⑤ 3. 유세 4. ④ 5. (1) ①
 非 (2) 相 6. 故鄉 7. ④ 8. ① 9. ⑤
 10. ② 11. ⑤ 12. ④ 13. ⑤ 14. ④
 15. 필유아사언 16. ① 17. ④ 18. ②
 19. ④ 20. ① 21. (1) 이순신 (2) 안중근
 22. ⑤ 23. 예 학교 축제가 3년 만에 復活되었다.
 24. 학이시습지, 불역열호?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
 기쁘지 않겠는가?

1. 看(간) 보다
 2. ⑤ '集(집 모이다)'의 부수는 '隹'이다.
 3. 說(설) 말씀 / (열) 기쁘다 / (세) 달래다
 5. 非一非再(비일비재):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나 한돌
 이 아니고 많음. / 相扶相助(상부상조): 서로서로 도움
 6. 古 → 故
 7. ①, ②, ③, ⑤ - 서로 상대되는 뜻의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
 ④ - 서로 비슷한 뜻의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
 8. ① 教師(교사) → 教授(교수)
 12. 閑散(한산): ① 일이 없어 한가함. ② 인적이 드물어 한적하
 고 쓸쓸함. / 忙中閑(망중한): 바쁜 가운데 잠깐 얻어 낸 틈.
 13. 知之者(지지자): 그것을 아는 사람은
 14. ㉠은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.
 16. 擇其善者而從之, 其不善者而改之.: 그중에 선한 사
 람을 가려서 그[선한 사람]를 따르고, 그중에 선하지 않은 사
 람을 (가려서) 그것[자신의 잘못]을 고친다.
 17. 發(발) 피다, 쓰다 / 中(중) 가운데, 적중하다.
 18. '反求諸己而已矣.'에서 '諸'는 '~에게서'로 풀이되는 개사
 로 쓰인다. 이때 음은 '저'를 취한다.
 19. ① 임진년으로부터 5, 6년 이후의 일이다. ② '雨湖'는 전라도
 와 충청도를 가리킨다. ③ 명량 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
 왕에게 올린 글이다. ⑤ 안중근이 묻힌 곳은 감옥 안의 땅이다.
 22. ⑤ 許 - 허락하다